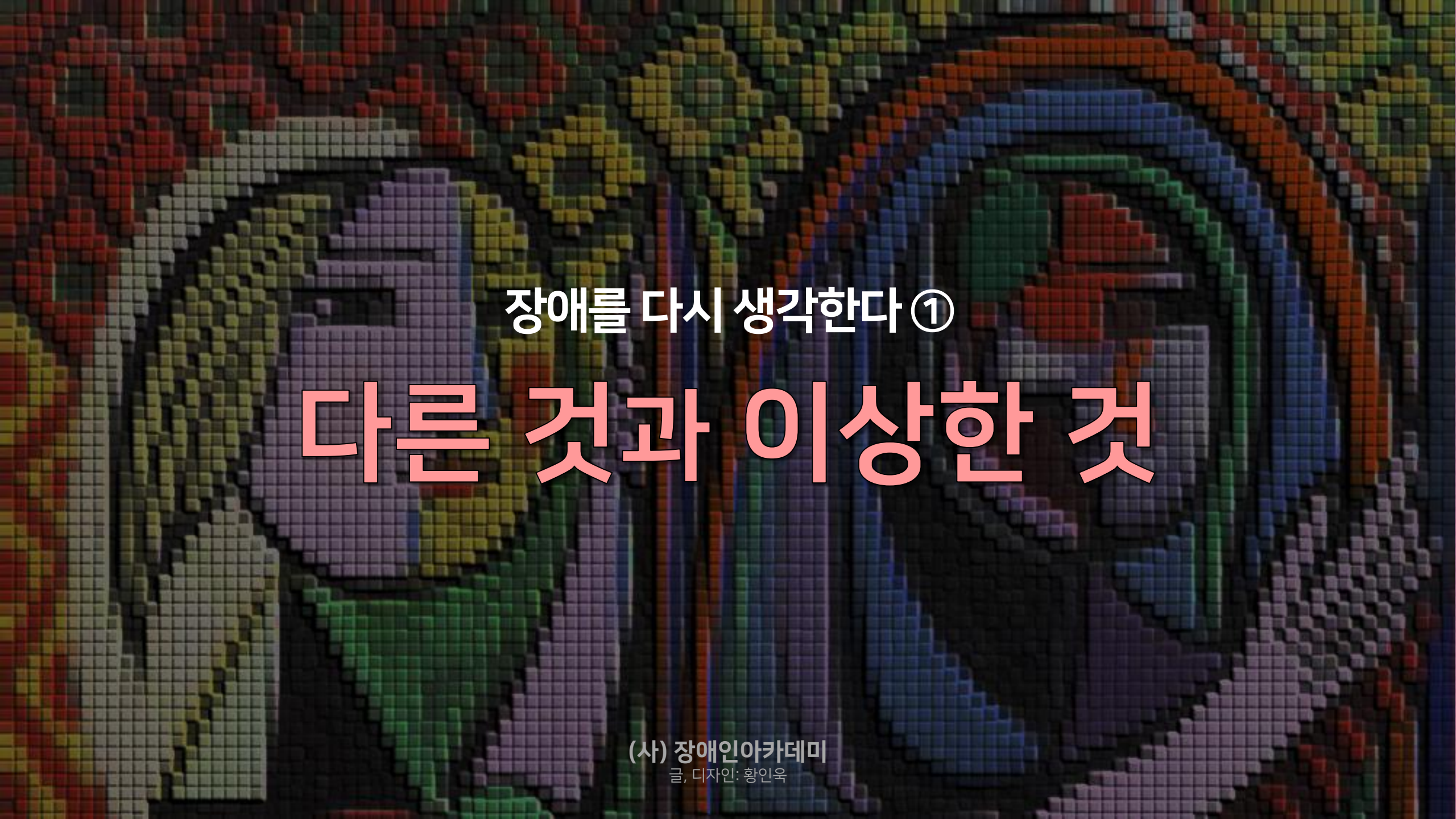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 장애의 역사 ①

(사) 장애인아카데미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 ①

# 다른 것과 이상한 것

(사) 장애인아카데미  
글, 디자인: 황인욱



①

# 안경과 목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  
200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SBS TV칼럼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목발입니다.  
저는 일생동안 걸을 때  
목발을 사용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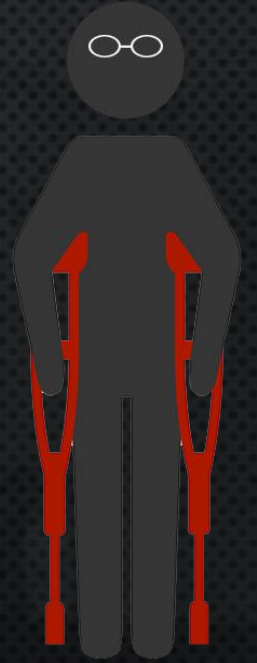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  
200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SBS TV칼럼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안경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근시라서,  
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안경을 쓸 때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가도

목발을 짚으면  
저를 1급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  
200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SBS TV칼럼

“하지만 제 입장에서 안경이나 목발은 똑같습니다.  
단지 제 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조장구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  
200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SBS TV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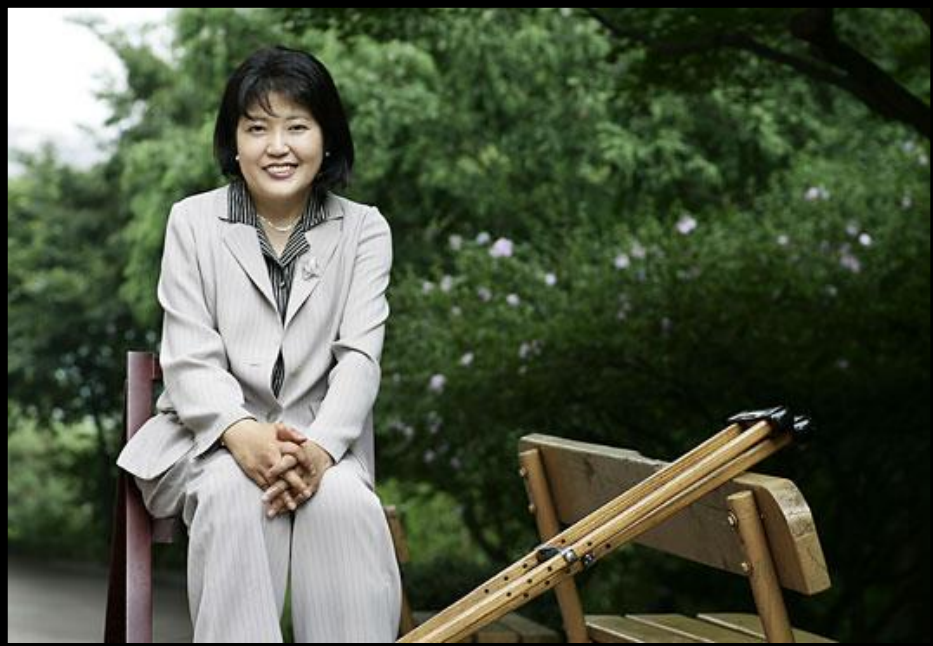
“안경을 쓰든 목발을 짚든  
장영희는 똑같이 인간 장영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사랑받고, 인정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회를 누리고 싶어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함께 살기 불편하다고 싫어하고 차별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취직시험에 불합격시키고,  
장애인 공동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치기도 합니다.”



▲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고 장영희 교수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사회가 주는 편견의 장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눈을 돕는 안경과 불편한 다리를 돕는 목발,  
이 두 개의 보조도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공평한가요?**



②

오른손과 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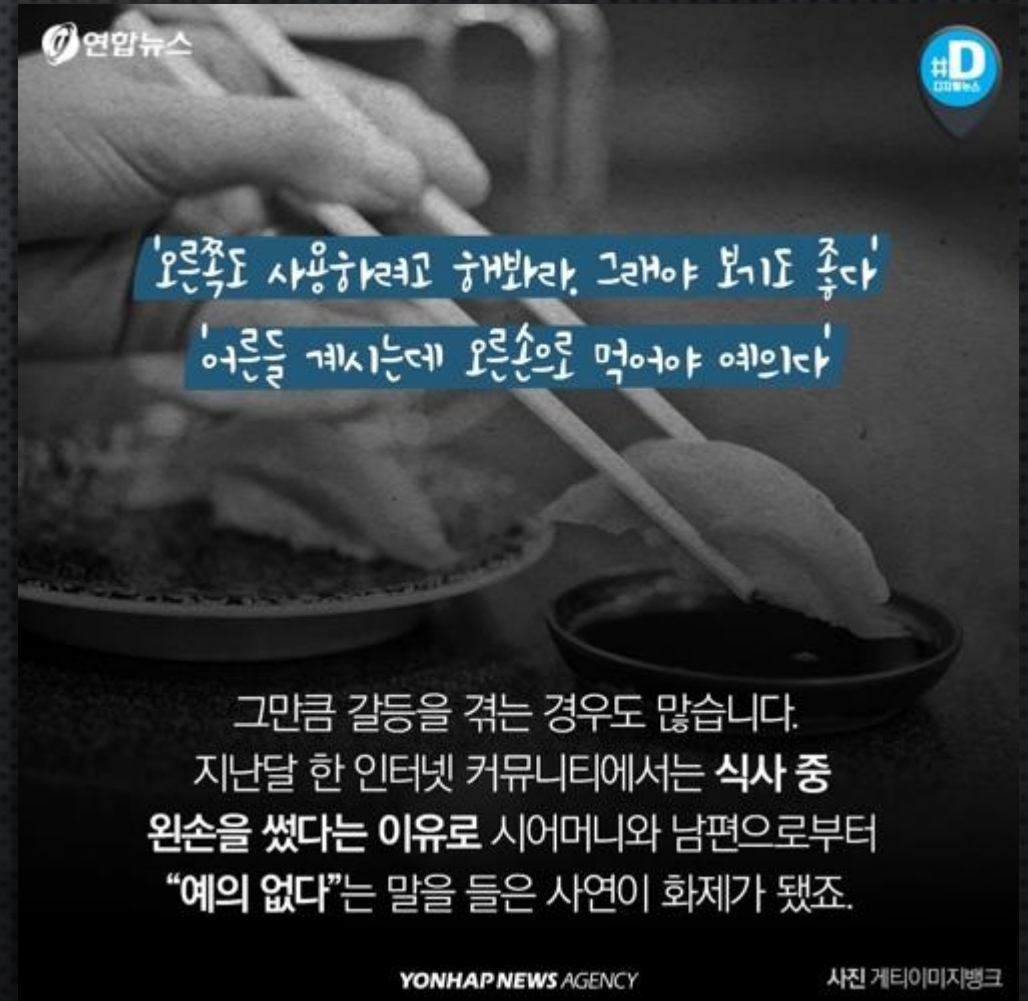
세상의 많은 물건은  
오른손잡이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세상의 약 12%인  
'왼손잡이'들에게는  
꽤 불리한 환경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거나  
젓가락질을 하면 혼을 내고  
오른손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왼손잡이'를  
별종 취급을 했던 시대가 있었지요.



출처 : 연합뉴스 #D디지털뉴스(2017.11.21)

오른손잡이가 볼 때  
왼손잡이는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보면 불편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비정상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연합뉴스 #D 디지털뉴스

“유치원에서 오른손으로 교정한다고  
남들 놀 때 받아쓰기를 시켰다”  
- 박모 씨(27)

“오른손잡이로 바꾼다고  
왼손을 붕대로 묶어놓기도 하고  
손등을 맞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느껴졌다”  
- 이모(24) 씨

하지만 억지로 바꾸게 하면 아이 스스로 자신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울증이나 언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YONHAP NEWS AGENCY

출처 : 연합뉴스 #D디지털뉴스(2017.11.21)



그러나 지금은  
왼손과 왼발을 잘 쓰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남다르고 특별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메시



나달



유남규



류현진

# 불편하고, 편견 듣고... ‘왼손잡이’의 설움

오른손만  
오른손인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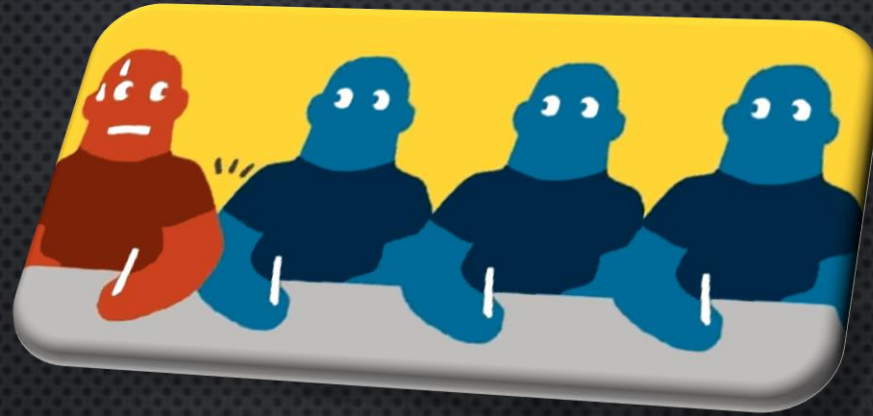


이상서 기자 shlamazel@yna.co.kr  
최효훈 인턴기자 choihaemil@yna.co.kr  
김유정 인턴기자 yujung0119@yna.co.kr

YONHAP NEWS AGENCY

지금은 많이 사라진 **‘왼손잡이’의 설움.**  
그것은 원래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생물학적인 속성이**  
**비정상적으로 분류되거나 부정되는**  
**차별의 경험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D디지털뉴스(2017.11.21)



우리가 흔히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왼손잡이'처럼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과 행동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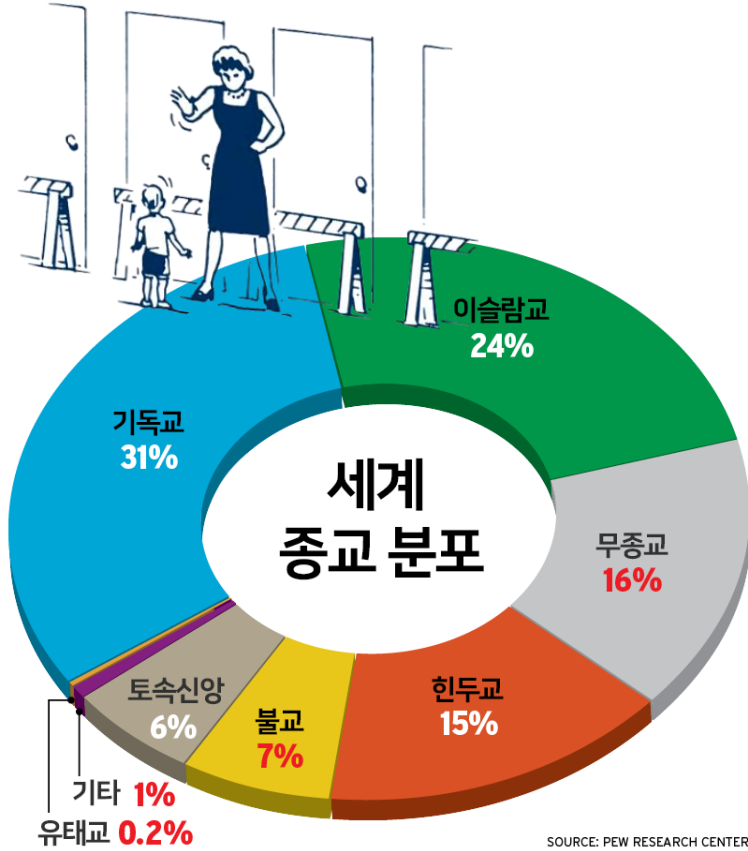
**어쩌면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정상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③



# 기독교와 이슬람교





주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부모가  
 불교 혹은 이슬람교에 더 호감을 느끼는 자녀에게  
**다른 종교는 비정상이라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은 각자의 양심에 따른 것일 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종교적 관용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신념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종교 갈등과 무자비한 전쟁을 겪고 난 후에야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가치를 알게 됐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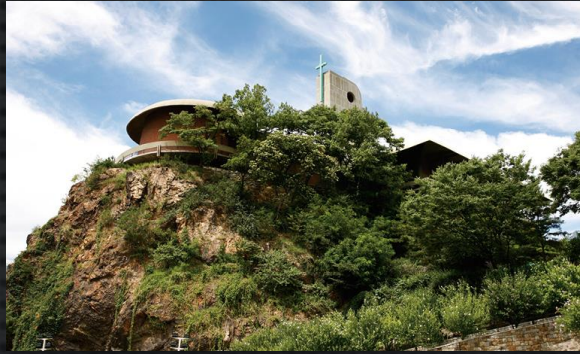
여러분 중에 주말마다 성당에 나가  
미사를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불과 백오십 년 전에는  
이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심각한 불법 행위였다면  
믿어지십니까?**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포천에서 천주교를 전파하던 홍교만, 홍인 부자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는 장면. 두 사람 모두 압송 후 참수되었다.(그림: 탁희성 화가)





서울에 있는 절두산 성지는  
천주교 박해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에게 '천주학생이들'이란  
혐오스러운 정신장애자였던 거지요.

**치유불가능한 정신병자들은  
역병을 퇴치하듯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왜 인류사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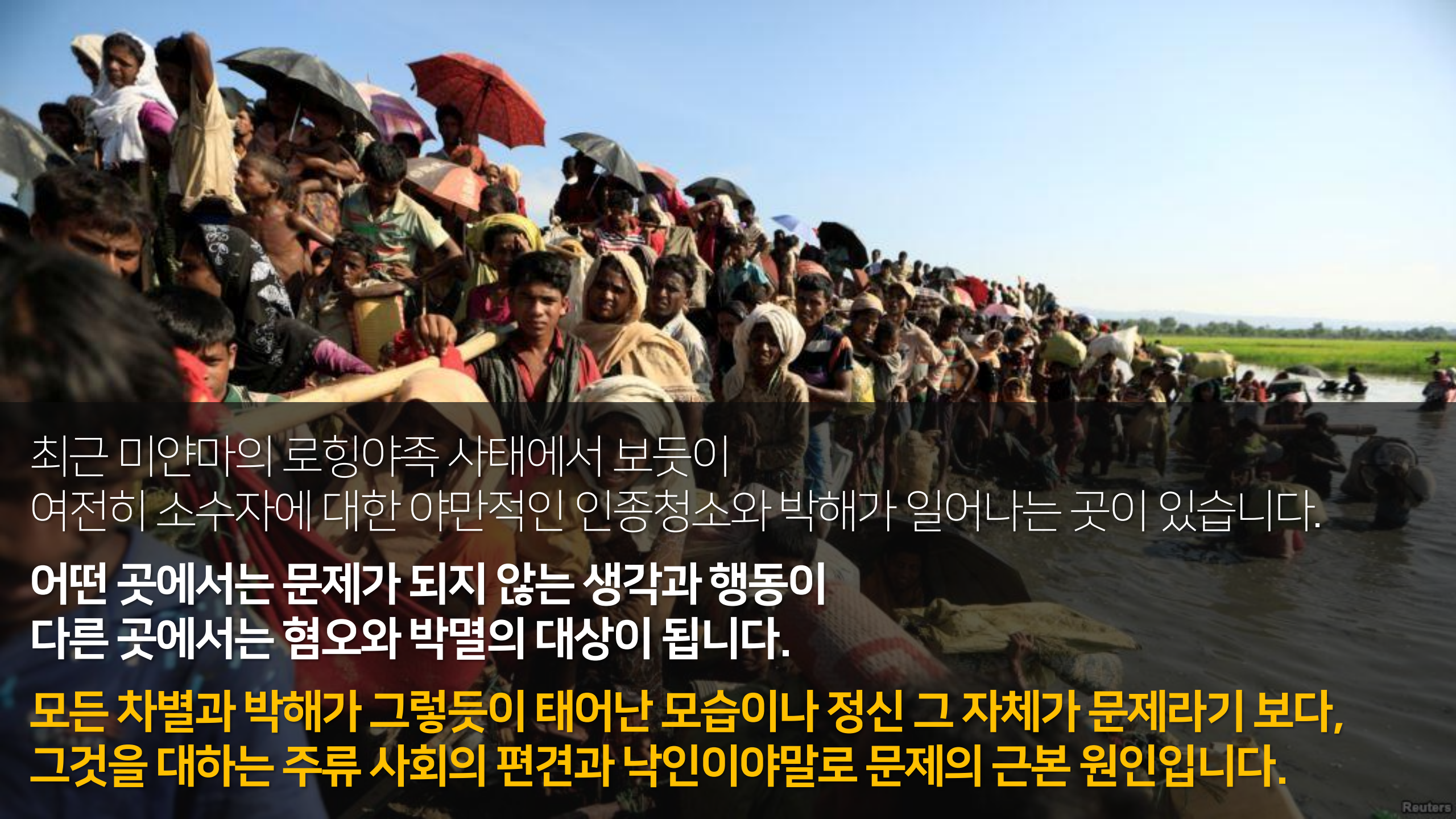


아직도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적 신념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신앙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악입니다.



**나와 다른 생김새, 다른 신념, 다른 문화에 대해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그리 너그럽지 못합니다.**



최근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에서 보듯이 여전히 소수자에 대한 야만적인 인종청소와 박해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다른 곳에서는 혐오와 박멸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차별과 박해가 그렇듯이 태어난 모습이나 정신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그것을 대하는 주류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야말로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모든 편견은 학습되고 전파되고 공유되는 상대적 문화 가치에 불과합니다.



눈동자가 파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색 눈동자가 별나 보이고,  
눈동자가 갈색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파란 눈동자가 별나 보이는 것처럼,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다수라는 것만이 사실일 뿐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라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④

# 주류와 비주류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정복당한 이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한 것이 그리 멀지 않은 일입니다.



**노예무역 시대의 흑인들은  
오늘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학대와 차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혼혈인들을 꺼리고 차별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혼혈 스타들이  
종종 매스컴에 나와  
과거 혼혈인으로서 느낀  
설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 혼혈인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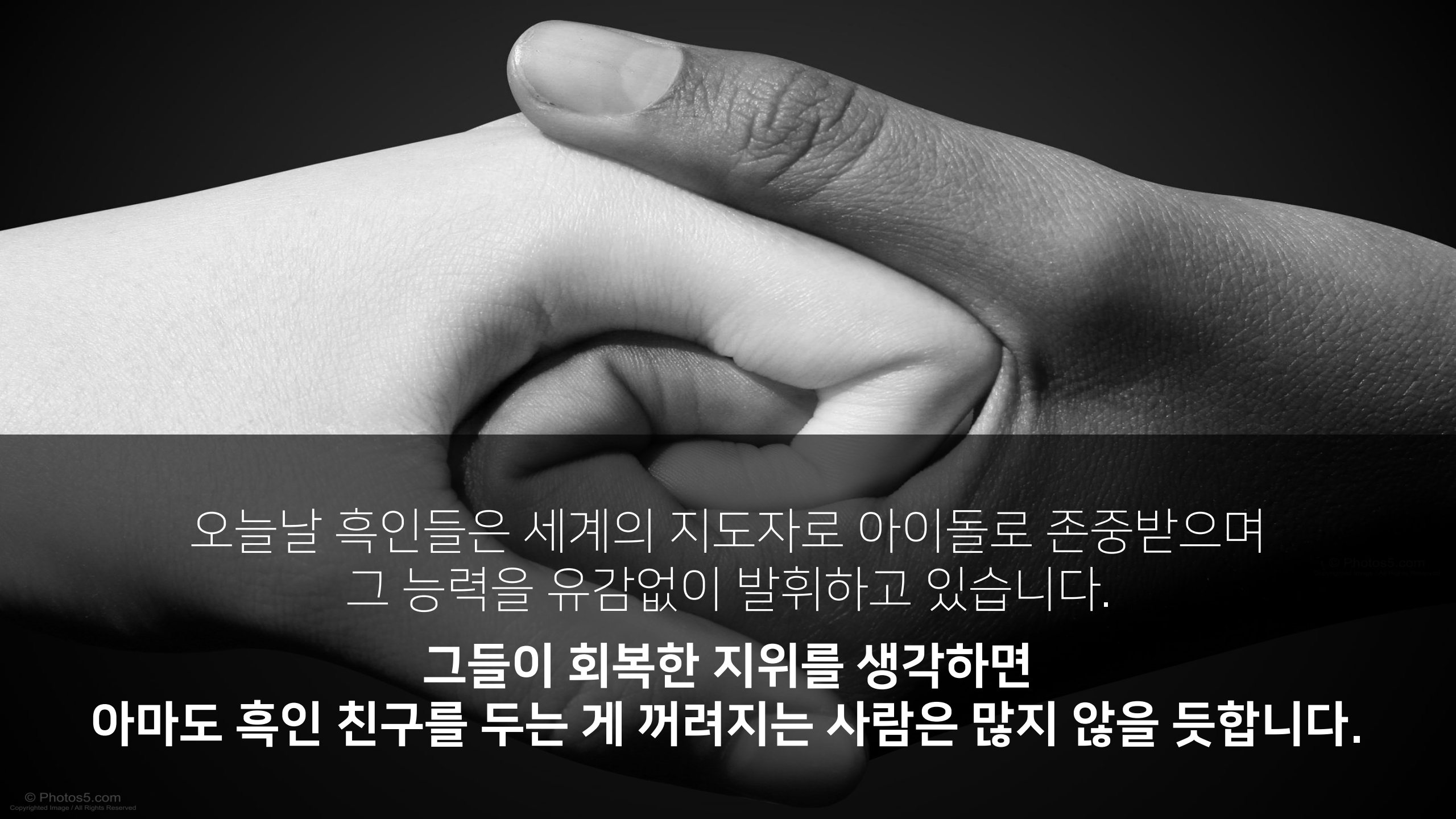
백인과의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흑인 혹은 아시아인과의 혼혈인들은 지금도 상당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장애인과 친구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외국인과 친구되기가 쉽습니까?**



오늘날 흑인들은 세계의 지도자로 아이돌로 존중받으며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한 지위를 생각하면  
아마도 흑인 친구를 두는 게 꺼려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왜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은 빠르게 사라지고  
같은 인종 안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오래 남을까요?**

⑤



# 소수민족과 장애인



어쨌든 생김새가 특별하고 의사소통방식도 다르고  
뚜렷이 구분되는 행동양식과 문화를 가졌다는 점에서  
맹인, 농인, 지체장애인 등을 각각 '소수 인종'으로 분류하기로 합시다.

그렇다 해도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들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 보다는  
훨씬 적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닐까요?

인디언과 흑인들이 그러했듯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이해 속에서 친구이자 이웃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인종' 차별을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도 반대해야 마땅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인의 체형, 문화, 취향에 맞게 세계 문화를 구성한다면  
과연 비아시아인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반대로 힘의 논리가 동원되어 서양인들의 체형, 식습관, 취향에 맞게  
전세계 모든 시설을 만든다면 비서양인들은 차별로 느끼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학습되고 전파되는  
문화적 편견입니다.**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편견을  
전파하고 대물림했듯이,**

**우리도 장애인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백인들의 편견을 넘어  
흑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듯이,  
**장애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야 하지 않을까요?**

## 이제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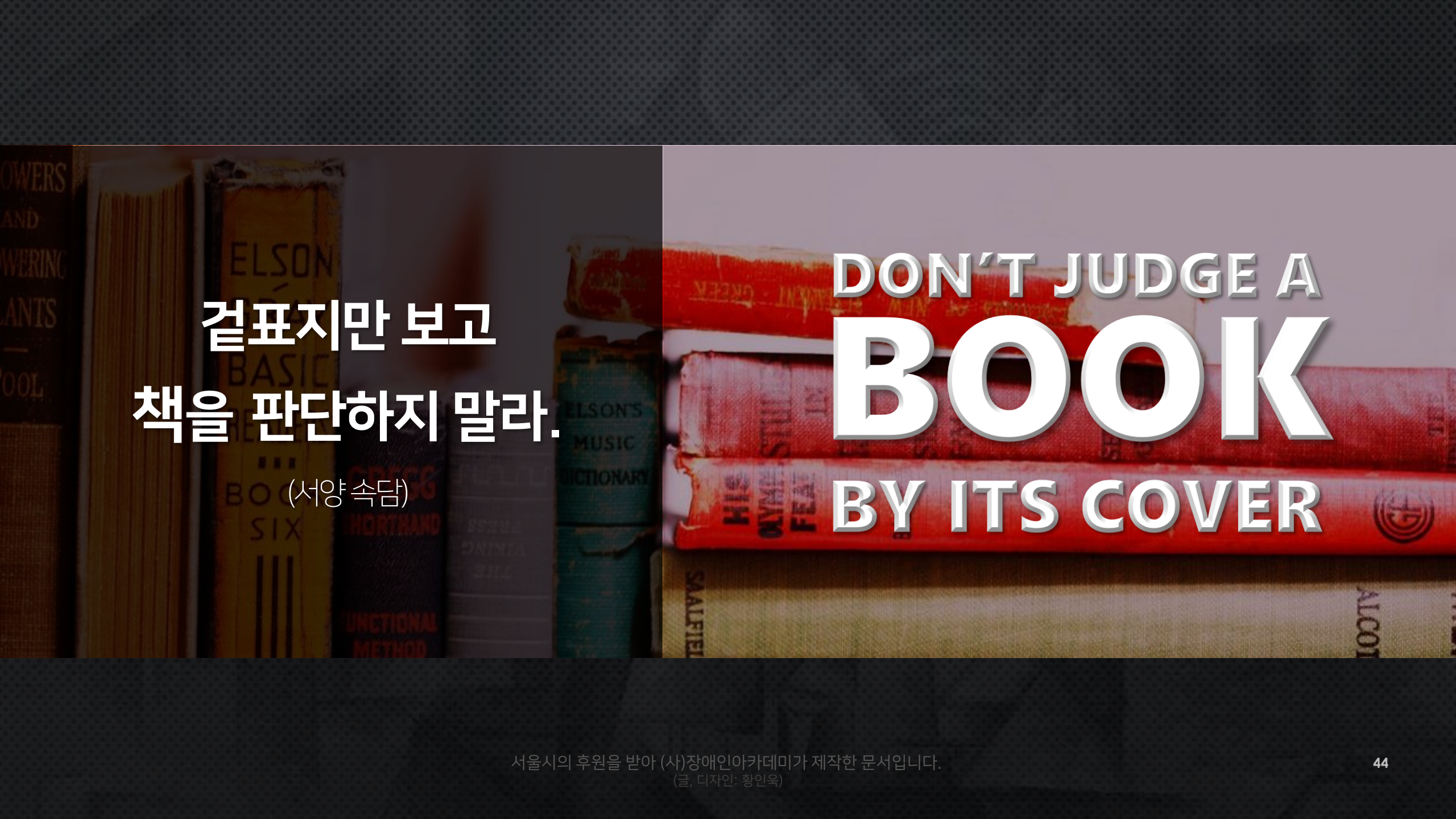
- ◆ 어떤 사람들의 겉모습과 독특한 습관과 행동방식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잘못되고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다수의 시선이 문제일까요?
- ◆ 흑인을 바라보는 백인 주류 사회의 시선, 동양인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시선, 조선인을 바라본 일본제국주의자의 시선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흑인으로, 동양인으로,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문제인가요?

⑥



외면과 내면





겉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


(서양 속담)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사람들은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침을 흘리면서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그 사람이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 반응 및 자세와 관련된 장애는  
사람의 인지 기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A photograph of Stephen Hawking in his wheelchair. He is wearing a grey suit and glasses. On his head, he has a black brain-computer interface device with several sensors. He is looking towards a laptop computer in front of him. The laptop has an Intel logo and the word 'permobil' on it. The background is a blurred blue and yellow light.

**얼마전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21살 때 루게릭병이라는 후천성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후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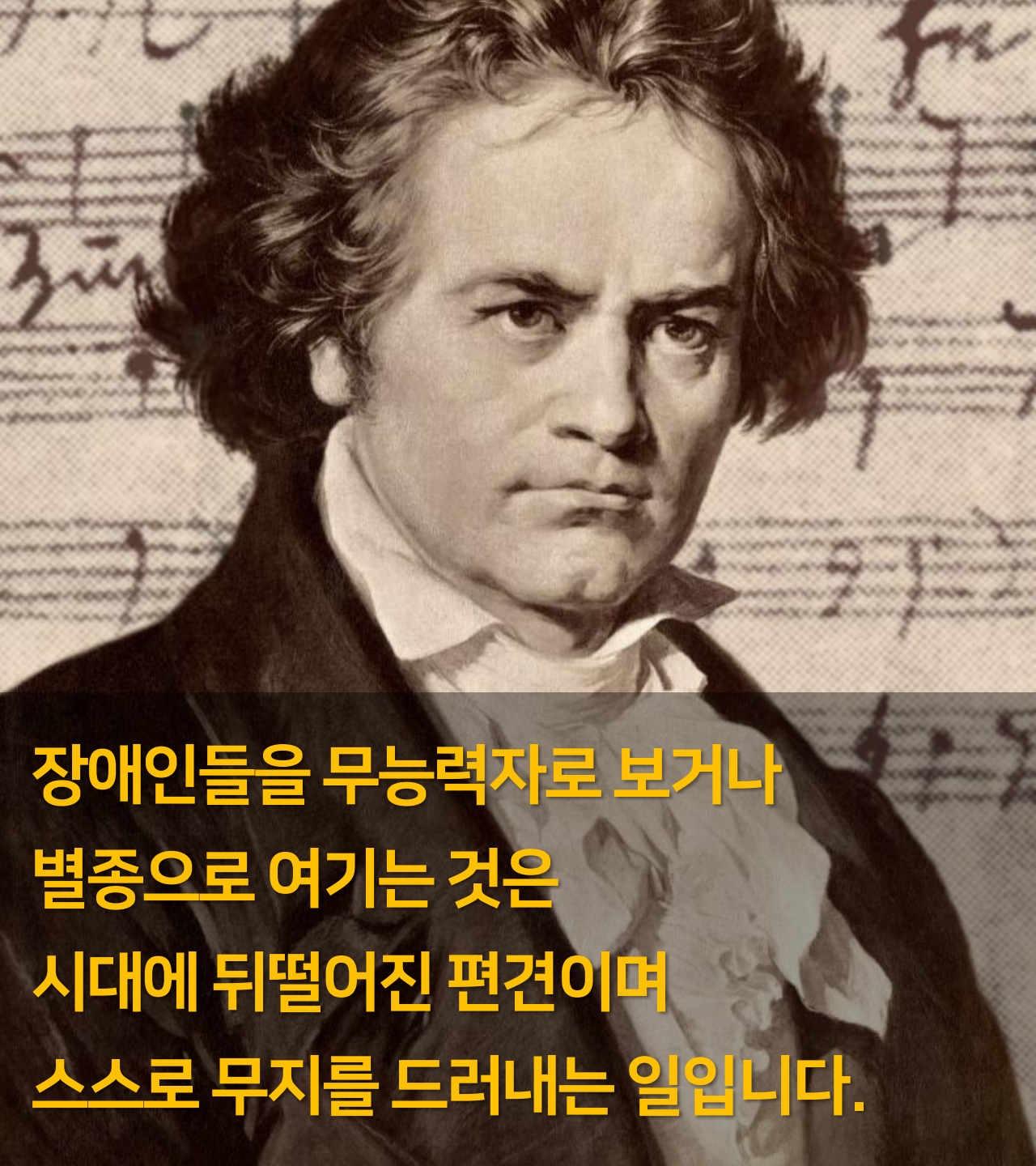
**블랙홀 이론 등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서 그가 남긴 위대한 과학적 업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개막식에서 그가 했던 말은  
**장애인과 보통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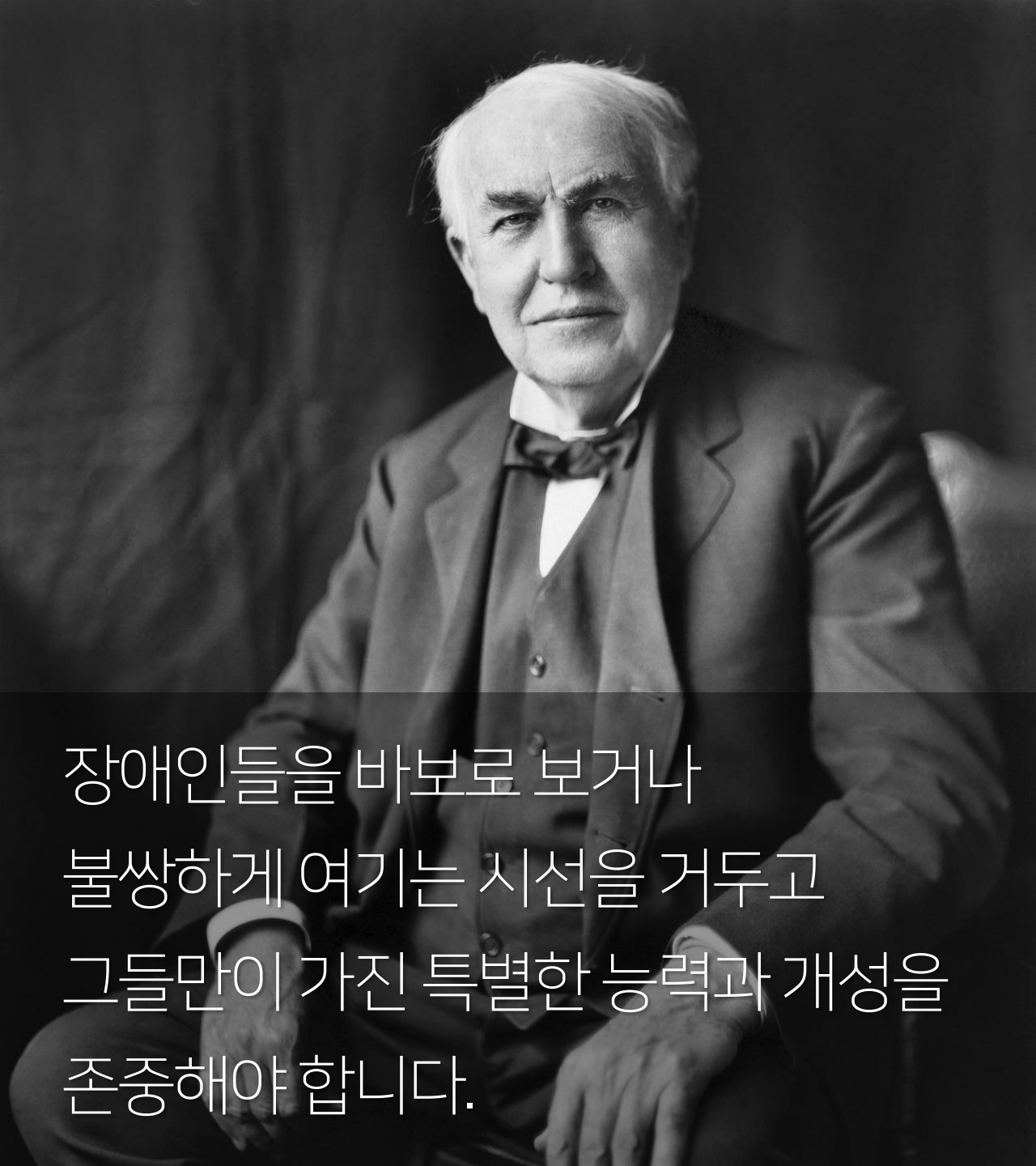
“

우리는 모두 다르며,  
표준적이거나 평범한 인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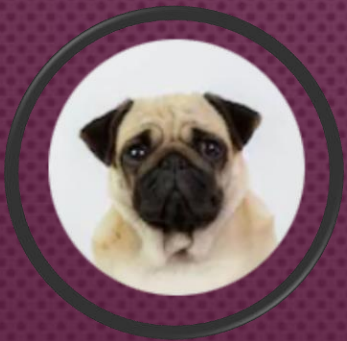


**장애인들을 무능력자로 보거나  
별종으로 여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편견이며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장애인들을 바보로 보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을 거두고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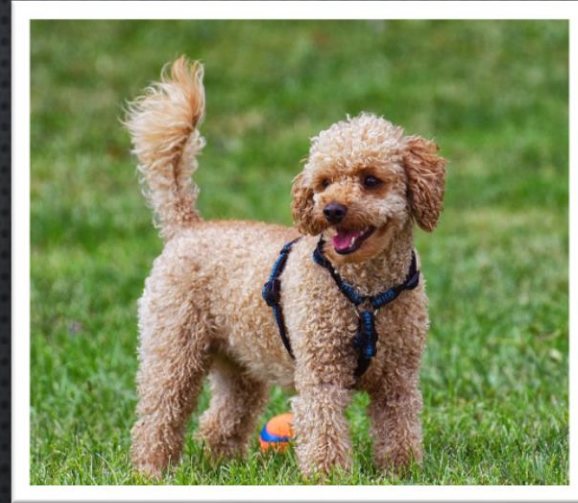
# 퍼그와 닥스훈트



# 여기 진돗개와 푸들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푸들처럼 귀여운 모습은 아니지만  
능름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습니다.



**푸들**은 진돗개처럼 빼어난 몸매는 아니지만  
충분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진돗개와 푸들 중에 누가 더 멋진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뭔가 질문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닥스훈트와 퍼그가 있습니다.



**닥스훈트**는 보통 개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  
어딘가 난장이처럼 보이고,



**퍼그**는 입이 보통 개와는 달리 쑥 들어가 있어  
뭔가 기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개들이 생김새 때문에 차별을 받고 학대를 받나요?  
오히려 다르고 다양해서 개성 있고 귀엽다고 느끼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걸까요?**

# “세상은 달라서 아름답습니다”

Being different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thing on earth.

흙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달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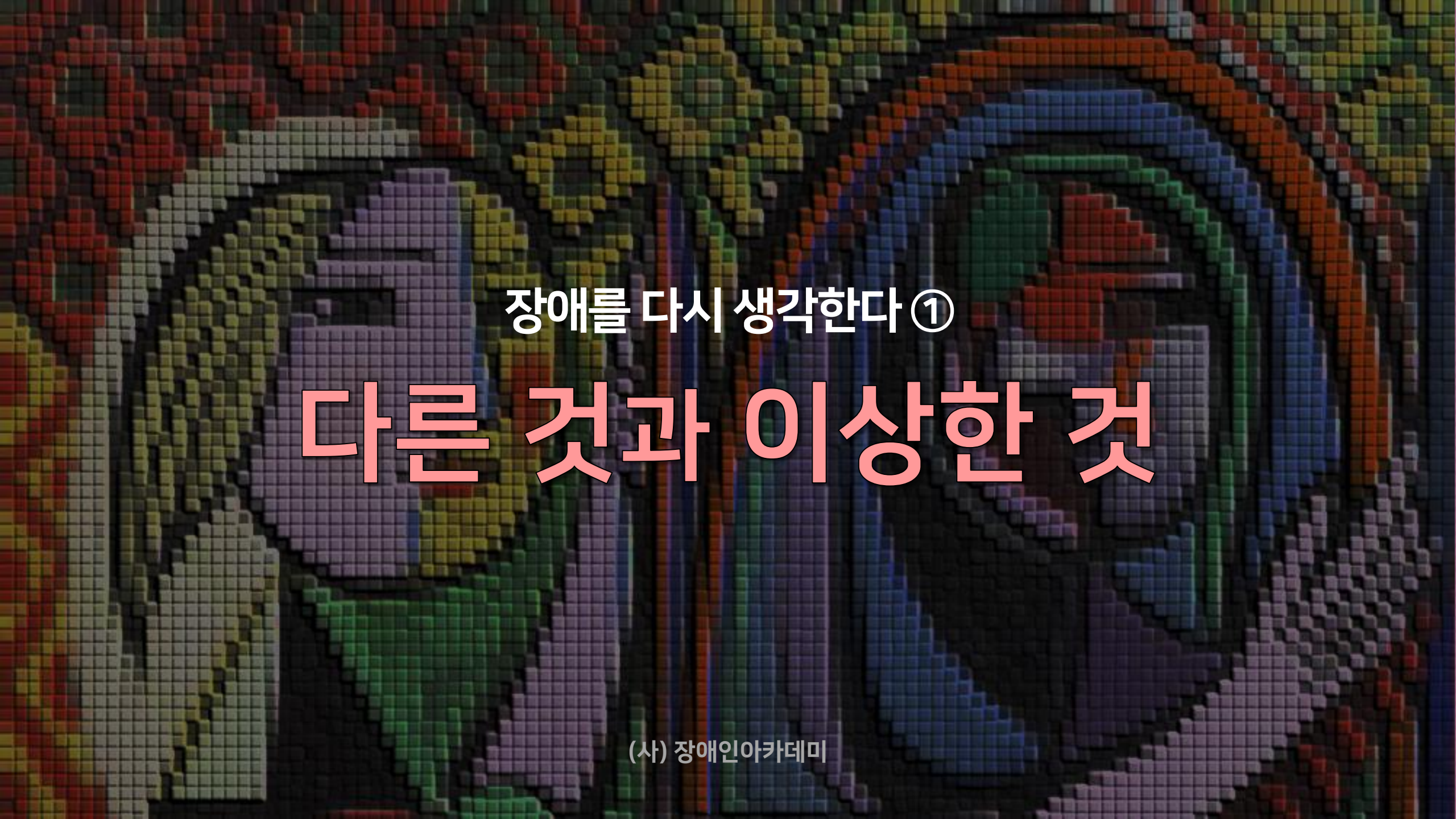
다양하기에 푸른 행성 지구가 아름답습니다.

**다리가 길거나 짧고, 코가 높거나 낮고, 피부색이 밝거나 어두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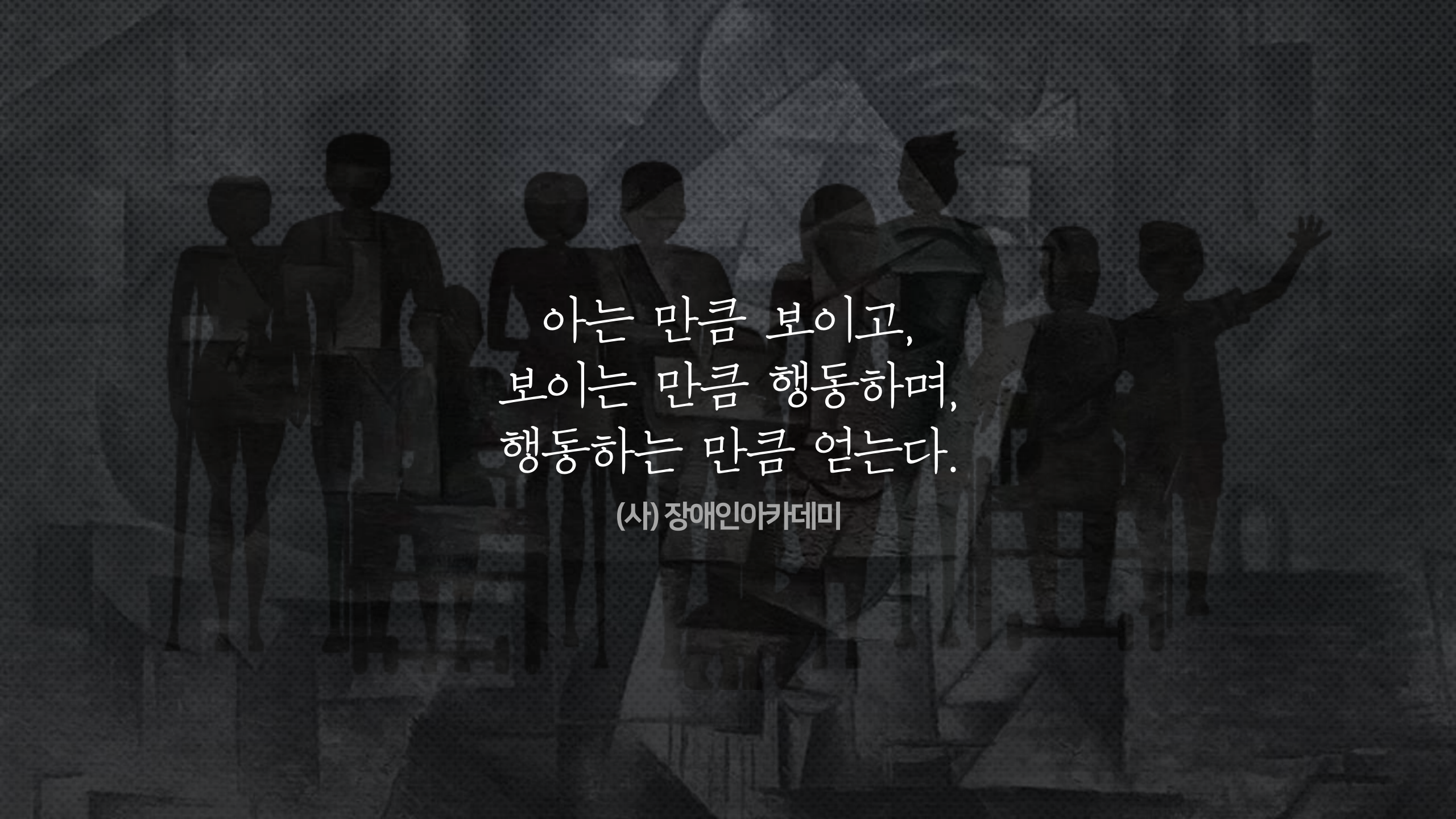
-헬렌 켈러(Helen Adams Keller, 1880~1968)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 ①

# 다른 것과 이상한 것

(사) 장애인아카데미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며,  
행동하는 만큼 얻는다.

(사) 장애인아카데미